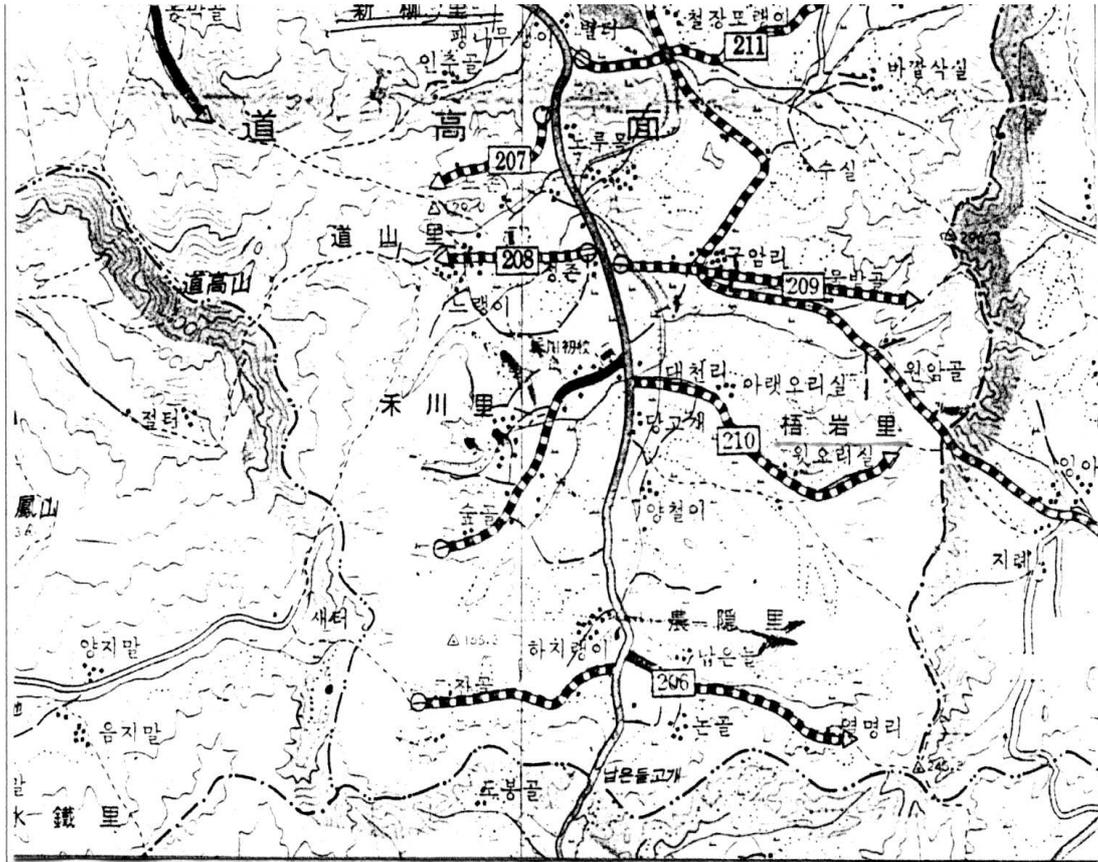


* 마을사 *

오암리·梧岩里

오암리는 도고면의 한 마을로서 오리실과 원암골로 구분되며, 오암리는 오정리라 불리었는데 오정리는 마을에 다섯 그루의 정자나무가 있다고 하여 유래되었으며, 지금은 세 그루의 정자나무만이 남아 있고, 오리실 마을은 옛날 사기 그릇을 굽던 사기장터가 남아 있으며, 원암골은 오래전 마을의 골짜기 절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기와편과 담장 형태의 축대석이 발견 됐으며, 호구수는 총 63호이며,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본래는 신창군 남하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구암리, 원암리, 외곡리를 병합하여 오곡과 구암의 이름을 따서 오암리라 하여 아산군 도고면에 편입 되었다.

<오암리 위치도>



⊗ 오리실, 원암골(구암이) 마을

오암1리는 오리실 마을이라 부르며, 오리실 마을은 아랫말, 윗말로 되어 있으며, 옛부터 피난처라고 일컬어 오고 있으며, 또 다른 설은 오동나무가 많다하여 유래 되었다.

오암2리는 원암골과 구암이로 구분되며, 원암골 마을은 옛날 원앙새 한쌍이 슬피 울며 마을을 나갔다 해서 유래된 것이며, 오리실 북쪽 아래에 있는 마을로 뒷산에 바위가 아홉이 있고, 또 거북 모양의 바위가 있다해서 구암이라 유래되었다.

<조사당시 오암리 마을 관련 사진 >



1) 위치

오리실 마을은 위도 36-43-10, 경도 126-55-10의 위치에 있으며, 석당 저수지를 지나 덕암리 옆에 있는 마을로 석당 저수지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화천리와도 근접해 있는 마을로 진입로는 좁고 낙후되어 교통이 매우 좋지 않다.

원암골 마을은 위도 36-42-50, 경도 126-56-10의 위치에 있다. 원암골은 오리실과 덕암리의 사이에 있으며, 이곳 또한 오지라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드물다. 덕암리에서는 약 300m쯤 떨어져 있고, 오리실에서는 약 500m쯤 떨어져 있으며 화천리 농협창고 앞에서 내려서도 300~400m를 걸어 들어가야 한다. 또한 구암리 동쪽 오리실 동북쪽 너머에 있는 마을이다.

2) 현황

오리실 마을의 인구 현황을 보면 남 57명, 여 45명으로 총 102명에 이르며, 호구수는 28호로 100%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수박과 쪽파를 재배하는 면적이 가장 많다.

원암골 마을은 인구현황은 총 147명으로 남 85명, 여 62명에 이르며, 호구수는 35호로 농업에 85%가 종사하고 수박과 쪽파를 재배하고 있으며, 4%는 축산업에 종사한다.

- 인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	여
오리실 마을	102명	57명	45명
원암골 마을	147명	85명	62명

- 생업

구 분 마 을 명	계	농 업	축산업
오리실 마을	100%	100%	-
원암골 마을	100%	96%	4%

오리실 마을의 농경지 현황은 논 19.4ha, 밭 28.3ha로 원암골 마을보다 농경지가 약간 더 많고, 논에 비해 밭이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고, 농기계는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등 각종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을회관이 1개소가 있고 마을앰프와 농약 기구들이 갖추어져 있다.

원암골 마을의 농경지는 논 24ha, 밭 18ha로 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농기계는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앰프 시설이 갖추어진 마을회관이 1개소가 있고 농약기구들이 비치되어 있다.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논	밭
오리실 마을	47.7ha	19.4ha	28.3ha
원암골 마을	42ha	24ha	18ha

- 문화시설

구 분 마 을 명	계	마을회관	기타문화시설
오리실 마을	1개소	1개소	-
원암골 마을	1개소	1개소	-

오리실 마을의 성씨별은 김씨 32%, 오씨 28%, 이씨 14%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40대가 가장 많다.

원암골 마을의 성씨별은 김씨 34%로 가장 많고, 이씨 17%, 박씨 11%, 최씨 11%로 나타나며, 연령층은 20대~60대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김씨	이씨	박씨	오씨	윤씨	최씨	기타성씨
오리실 마을	28호	9호	4호	1호	5호	-	-	9호
원암골 마을	35호	12호	6호	4호	1호	4호	4호	4호

- 최고령자

오리실 마을의 최고령자는 금년 90세의 국해순 할머니로 알려져 있으며, 원암골 마을의 최고령자는 김 삼직씨로 83세이시다.

3) 자연경관

오리실마을에는 마을 뒤에 원암골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샘골이 있고 노씨 부자가 살았다는 노갑골이 있다. 샘골은 물이 맑고 마르지 않는 샘이 하나 있었으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오리실 마을은 숲이 우거져 있고 고압철탕이 마을 중간에 있으며 야산에 요지가 무척 많다. 마을 입구에서 농경지와 가옥이 멀리 떨어져 있으며, 마을 입구에서 보면

왼쪽은 주로 밭이 있으며, 오른쪽은 논이 많고, 정자나무가 5개라 오정리라고도 불리웠으며 현재는 이 정자나무가 3개만 남아있다.

원암골마을은 구암리가 있으며 이 구암리는 원암의 옛이름이기도 하며 오리실 북쪽 아래에 있는 마을로 뒷산에 바위가 아홉이 있고 또 거북이 모양의 바위가 있으며 정현옹주의 생모 상침송씨(세종대왕의 상침)의 묘가 있다. 주변 들로서는 구암리 앞에 널려 있는 하괘미들이 있다.

4) 마을 변천 과정

본래 신창군 남하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구암리, 원암리, 외곡리를 병합하여 오곡과 구암의 이름을 따서 오암리라 하여 아산군 도고면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오리실 마을의 형성은 약 1300년대경 약 700여년전쯤으로 추정되며, 인구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30년전으로 현재 금령 김씨가 18대째 살고 있고, 현재도 김씨가 많이 살고 있다.

원암골 마을의 형성은 서기 1400년경 약 600여년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마을 사람들의 성씨도 김씨가 많으나 원암골의 그 성씨 종류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지 명

十 오리실 마을3의 지명

- 오리실 : 구암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오목한 골짜기에 있으며 옛부터 피난처라고 함. 전에 오동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함.
- 사기장골 : 오리실 동쪽에 있는 골로서 옛 도요지가 있었음.
- 마래들 : 오리실 남쪽에 벌려있는 들로 알려져 있으며 예전에 가뭄이 잘 들어서 마래들이라 불림.
- 샘골 : 오리실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서 샘이 좋은게 하나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진지 오래 됨.
- 노갑골 : 노씨 부자가 살았다 함.

十 원암골 마을의 지명

- 구암리 : 오리실 북쪽 아래에 있는 마을로서 뒷산에 바위가 9개가 있고 또 거북이 모양의 바위가 있다고 함.
- 원암골 : 구암리 동쪽에 있는 오리실 너머에 있는 마을임.
- 백자요지 : 오리실 마을 사기장골에 있다. 사발, 접시, 종지등이 가끔씩 발견됨.
- 원암골 절터 : 원암골이라는 골짜기에 있으며 기와편과 담장형태의 축대석이 발견 됨.
- 하괘미 : 구암리 옆에 널려 있는 들.
- 상침송씨묘 : 정현 옹주의 생모 상침송씨 (세종대왕의 상침)의 묘.

7) 전 설

十 상침송씨묘의 유래 (원암골 마을)

조선조 세종대왕의 상침이었던 정현옹주의 상모 송씨 여인의 일화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여인이 우물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지나던 중이 배가 고파 죽겠다고 하면서 여인에게 재촉하는 것이었다. 보다못한 여인은 하는 수 없이 그 중에게 젖을 짜 주었다고 했다. 그러자 중이 인사의 표시로 묘자리를 하나 봐 주면서 곧 상침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런일이 있는 얼마후 그 여인이 정말로 상침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라 해서 훗날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의 넋을 기리기 위해 그의 묘를 친히 써 주었다고 한다.

十 구암바위의 전설 (오리실 마을)

도고면 오암리 오리실 북쪽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에는 아홉명의 형제를 둔 농부가 살고 있었다. 아홉명의 형제는 우애있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착한 아들들이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돌아 가시자 그 농부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새 어머니를 맞아야겠

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새로 맞은 어머니를 아홉 형제들은 지성으로 모셨으나 사실 그 새어머니는 재산이 탐이 나서 들어온 나쁜 여자였다. 그래서 그 여자는 모든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아홉씩이나 되는 형제가 문제였다.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아홉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다 보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고을 점장이와 계약을 꾸미게 되었다. 지가가 점을 쳐 보았는데 집안에 액운이 끼었다는 것이다. 그 액운이란 아홉씩이나 되는 아들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애들을 빨리 내쫓지 않으면 그 집에 불길한 일이 있을 것이라 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그 농부는 집에 귀신이 나타나고 막내가 병이 드는 등 예사롭지 못한 일이 자꾸 벌어지자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새 부인의 말을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무런 의지도 없는 아들들은 하루 아침에 거지가 되어 밤이슬을 맞으며 지내야 했다.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을 내쫓은 것이 새어머니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면서 원망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내쫓기는 하였으나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며 그들은 모두 죽여 없앨 방법을 생각하였다. 그 방법이란 그 점장의 점술로 고양이로 사나운 호랑이로 둔갑시켜 아홉형제를 죽이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호랑이로 둔갑한 고양이는 숲속에서 잠에 곪아 떨어져 있는 아홉형제를 죽이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호랑이로 둔갑한 고양이는 숲속에서 잠에 곪아 떨어져 있는 아홉형제를 차례로 물어 죽였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아 농부는 당장 그 자리에서 새 아내의 목을 내리치고 아들들이 있었던 곳으로 가 보았더니 그곳에는 아들 대신 아홉 개의 바위가 서 있었는데 그 모양이 거북이와 같이 생겼으며 집쪽으로 휘어 있었다 한다.

8) 전통놀이 및 집단행사

오리실 마을은 예전에는 산제사를 지냈으나 현재는 산제당이 폐쇄 되었기 때문에 지내지 않고 있다.

원암골 마을은 마을 경로 노인 위안 잔치를 매년 열어주어 노인을 공경하며, 위로하는 잔치를 갖고 있으며, 동지날에는 팔죽을 해 먹고, 가을 추수가 끝나면 가을떡을 해서 이웃들끼리 나누어 먹으며, 친목계로서는 우친계라는 것이 있는데 계원이 전부 남자뿐이고 그 목적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를 위한 것이다 한다.

9) 특별하게 소개할 만한 인물

10) 종교단체

오리실 마을과 원암골 마을에는 종교단체가 없지만, 교회는 화천리에 있는 교회를 주로 다니고 절은 도산1리에 있는 절을 다닌다고 한다.

11) 공장현황

오리실 마을과 원암골 마을에는 공장이 전혀 없다.

12) 마을의 특성

오리실 마을은 주위에 산으로 둘러 싸여 있고, 도고면에서 가장 오지에 있는 마을이며, 가구수 및 경지면적도 매우 적은 편이다. 마을사람들이 전부 농업에 종사하며, 특산물로는 수박과 쪽파를 재배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마을앞에 오정리라 하여 정자 나무가 5그루가 있었으나 지금은 3그루가 남아 있고, 또한 마을에 100년이 넘는 소나무가 있는데 그 자로 생겼으며, 장수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은행나무가 많고 숲이 우거져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정이 넉넉히 넘쳐 흐르는 농촌 마을이다.

원암골 마을은 같은 오암리임에도 거리가 꽤 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대중교통으로 인하여 마을 사람들은 교통에 어려움이 많으며, 원암골 앞에 늪은들이 있으며, 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벼농사를 가장 많이 짓고 있다.